

## 세상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성경본문 <사도행전 4장 1절 ~ 22절>

[1]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2]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3] 그들을 잡으매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4]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오천이나 되었더라 [5]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6]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7]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8]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이 [9]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10]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11]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12]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13]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14]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15]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16]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17]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 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18]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19]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20]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21]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22]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사십여 세나 되었더라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믿는 자가 남자의 수만 약 5,000명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종교지도자에게 가장 거슬리는 이야기가, 자신들이 죽였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하고, 로마 병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잡아들이고, 로마의 법정에도, 자신들의 법정에도 세웠지만, 마땅한 죄명을 찾을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신성모독죄와 내란을 일으킬 만한 위험한 사람으로 몰아서 십자가형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재판 과정으로 인해서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 사람이 죄인인 것을 가리는데, 사람들의 일방적인 증언을 토대로 했고, 나중에는 ‘바라바’와 함께 명절을 맞아 풀어줄 한 사람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을 이용해 예수님을 죽이도록 선동하였습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했다는 것 자체가 그들의 죄를 기억나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형국이 되었으니, 절박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 1. 성령님이 베드로를 붙들고 계십니다.

[7]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8]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이 [9]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10]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11]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12]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철저히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 분에게 있었던 일들을 철저히 대언하고 있습니다.

종교지도자들은 그들이 누구의 권세와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느냐고 묻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심문했을 때 했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들을 잡아넣을 방법을 찾기 위함이었습니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에 대해서 자신들에게 묻고 있는 종교지도자들에게 선포합니다. 베드로는 2달 전만 해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의 목숨을 빼앗을 수도 있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당당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고친 것도 사실이고, 바로 그 사람이 증인으로 베드로 옆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가 했던 말을 부인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이 베드로를 붙들고 계십니다. 세상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 2.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17]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 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18]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19]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20]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21]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사도들의 삶에서, 가장 놀라운 변화는 **위협으로 그들을 가만히 있게 할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성령님을 통해 이것이 실체가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이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고 물었다는 것은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을 듣고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며, 자신들이 분명히 본 것을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됩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 위에 있다면,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스스로 묻고, 대답해 보아야 합니다.

### <기도제목>

1. 성령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소서.
2.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소서.